



인문·사회 3

1. 문제

문항 3

다수결의 원칙과 관련된 (가)의 주장을 (나)와 (다)를 활용해 비판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민주주의란 구성원의 뜻에 따라 공동체의 의사나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토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로는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 등이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사 결정을 할 때 토론과 설득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하지만, 양보와 타협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한 투표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한다. 이때 모든 구성원은 '1인 1표'라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견해보다 다수의 의견이 합리적이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구성원은 비록 반대표를 던졌을지라도 그 투표 결과에 일단 승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처럼 다수결의 원칙은 신속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소모적 논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분열을 방지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

(나) 대중의 선입견과 달리 히틀러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군소정당에 불과했던 나치당은 1930년대 초반부터 세계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고통받던 유권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범게르만주의, 경제 부흥, 반유대주의, 반공산주의 등을 표방한 나치당은 1932년에 치러진 두 차례 총선에서 모두 30%를 상회하는 지지를 받아 의회 내 제1당의 지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나치당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성공하였고, 대통령 힌덴부르크는 1933년 1월 나치당의 당수였던 히틀러를 총리로 지명했다. 1934년 8월 힌덴부르크의 사망으로 실시된 국민투표는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겸하는 총통직 신설에 대한 찬반투표였는데, 여기에서 압도적 찬성표(88.1%)가 나와 히틀러가 총통이 되었다. 그는 총통 취임 전후 정적(政敵)에 대한 테러와 숙청, 나치당을 제외한 정당의 불법화, 나치 친위대(SS) 등을 통하여 독재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독일 민주주의에 종말을 고하였다. 그리고 여론 조작과 선동을 통하여 소수자에 대한 독일 국민의 혐오를 자극했다. 히틀러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전 세계를 혼란과 파괴로 몰아넣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과 정치범,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등을 강제 수용소에서 학살하였다. 1945년 4월 히틀러의 자살 직후 나치는 패망하였고,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단되었다.

(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가짜 뉴스가 더욱 정교해졌다. 특히, 실존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은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벽해 선거를 포함한 민주주의 정치 과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A국의 대선에서는 B후보가 막말을 하는 것처럼 조작된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 이 영상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여론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B후보의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이러한 가짜 영상은 유권자의 확증 편향을 자극해 사회 분열을 심화시켰다. 이미 B후보를 싫어하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더욱 확신하고, 반대로 지지자들은 영상을 무시하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가짜 뉴스의 생성을 더욱 쉽게 만들어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정치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대중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가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지 않는 풍조를 조장하였다.

2. 문항 해설

- 제시문 (가)는 민주주의의 개념과 목적, 민주적 의사 결정의 절차,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 양자의 관계, 그리고 이 원칙 적용의 목적과 전제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다.
- 제시문 (나)는 다수결의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이용해 집권한 히틀러의 합법적 권력이 독재 체제의 성립, 국가의 패망과 분단, 소수자의 인권 말살로 귀결된 역사적 사례를 소개한 글이다.
- 제시문 (다)는 딥페이크로 제작된 가짜 뉴스가 여론을 왜곡하거나 사회 분열을 격화시키고,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한 선거 제도를 무력화한 가상의 사례를 제시한 글이다.
- 문제에서는 다수결의 원칙과 관련된 (가)의 주장을 (나)와 (다)를 활용해 비판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기본사항]</p> <p>(1) 8등급으로 채점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p> <p>(2)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채점</p> <p>(3)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채점</p> <p>(4)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p> <p>(5) 동일한 문항을 채점위원 2인 1조로 각자 채점</p> <p>(6) 2차 또는 3차 채점이 필요한 경우</p> <p>① 한 채점위원이 F로, 다른 채점위원이 F가 아닌 다른 등급으로 채점한 경우</p> <p>② 두 채점위원의 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3등급 차이가 나는 예 : C0와 B+ / D와 C+</p> <p>※ D = D0</p> <p>(7) 2차 또는 3차 채점의 방법</p> <p>① 1차 채점의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두 채점위원의 합의로 2차 채점 실시</p> <p>② 2차 채점한 결과가 (6)에 해당하는 경우 3차 채점 실시</p> <p>③ 3차 채점은 출제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채점위원 2인이 실시하되, 1차 채점에서의 높은 등급과 낮은 등급 사이의 등급을 부여</p> <p>(8)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p> <p>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채점</p> <p>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p> <p>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p> <p>[형식]</p> <p>(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p> <p>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게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p> <p>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p> <p>③ 제시문의 문장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옮겨 쓴 경우</p>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2) 분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650자 이상 : 2등급 감점 ② 600자 초과~65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③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④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⑤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⑥ 350자 미만 : F <p>[내용]</p> <p>● 채점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시문 (가)에서 강조한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 양자의 관계, 다수결 원칙 적용의 장점 및 그 전제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는가? (2) 제시문 (나)를 읽고 히틀러가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한 선거 제도를 악용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점과 다수가 선택한 독재자가 제2차 세계대전 및 소수자 학살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정리했는가? (3) 제시문 (다)에서 딥페이크로 제작된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무력화하고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가? (4) 제시문 (나)와 (다)의 사례를 활용해 제시문 (가)에서 서술한 다수결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 즉 그 목적 또는 장점, 그 적용의 전제 등을 적절히 비판하였는가? (5) 이상의 내용을 논증할 때 적절한 논거와 예시를 각 제시문에서 활용하여 충분히 서술하였는가? <p>● 채점 포인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항 해설과 채점 방향에서 언급한 사항을 답안에 충분히 반영했을 경우 내용 점수 A 등급 이상 부여 (2) 제시문 (가), (나), (다)의 내용을 각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1~2등급 감점 (3) 제시문 (나)와 (다)의 사례를 활용해 다수결의 원칙과 관련된 (가)의 내용을 적절하게 비판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4) 제시문 (가), (나), (다)의 내용 및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였더라도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5) 제시문 (가), (나), (다)와 관련된 각각의 답안 내용 또는 분량이 지나치게 불균형적일 경우: 1~2등급 감점 	

4. 예시 답안

(가)에 의하면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 중 하나로,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해 자기 의사를 정치 과정에 반영케 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 여기에는 다수 의견이 소수 의견보다 더 합리적이며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된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사회 통합과 정치적 안정의 달성을 꾀한다. 그러나 (나)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히틀러의 독재 권력 획득에 합법성을 부여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원칙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가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다수의 선택으로 선출된 권력이 소수의 자유와 존엄성을 말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다)의 딥페이크 사례는 가짜 뉴스가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한 선거 제도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는 여론을 왜곡하거나 사회 분열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풍조를 조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기반한 선거를 통해 사회 통합과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 (532자)